

[일본 해녀축제 아마 마츠리] 지역주민 주도로 에도시대부터 이어져

등록 : 2005년 09월 25일 (일) 19:12:58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지난해 8월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제적 브랜드인 '잠녀'를 주제로 한 '세계 해녀 문화 축제'가 제안돼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해녀연구팀의 '세계 해녀 문화 축제' 아이디어는 세계섬문화 축제 폐지 후 대표 축제 발굴에 고민하고 있는 제주도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신화'에 그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에도시대에서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는 일본의 아마마츠리는 대표성과 상징성은 물론 관(官)에 주도가 아닌 민(民)주도 축제라는 점에서 축제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제주해녀축제=평화연구소가 제안한 해녀 축제는 △세계적으로 그 독창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제주 잠녀의 민속과 민요를 주제로 한 해녀문화축제와 △송악산 군사기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문화축제 △모슬포 방어 축제△ 감귤축제 등을 연계, 독특한 제주문화와 평화 의 섬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해녀축제는 사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당시 현실화된 적이 있다.

전야제로 진행된 바람축제는 영등신맛이 곳을 중심으로 바다에서 죽은 해녀들의 혼을 달래는 무혼굿이 열렸다. 세화리 해녀항쟁 거리굿에서는 1930년 일본의 부당한 해산물 정책에 저항한 해녀들의 투쟁을 재현했으며, 어촌마을 신당기행과 우도 해녀마을 답사, 마라도 아기엽개 처녀당 기행 등은 어촌 생활 문화를 답사했다. 사계리 해녀대축제는 잠수굿과 물질대회 등 해녀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러졌고, 칠머리당굿보존회 무형문화재들의 공연과 제주의 옛해녀 사진전,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먹거리장터, 마당극,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었다.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축제 가능성이 있어보였던 해녀축제는 그러나 계속 축제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축제 구성에 있어 '잠녀'를 제대로 부각시키며 도민이나 참가객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앞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키고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잣대를 맞췄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 아마 마츠리(해녀 축제)=일본내 아마(해녀) 집성촌인 해사촌(海士村)이 있는 일본 이시가와현 와지마시에서는 매년 아마 마츠리(축제)가 열린다. 분명 아마 마츠리라는 말을 듣고 와지마시청 산업경제부 관광과에 협조를 구했지만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와지마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8월 중~하순에 걸쳐 나흘동안 치러지는 와지마 오오마츠리중 시작을 알리는 '오쿠초히메신사 대축제'를 아마 마츠리라고 설명했다.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마츠리지만 자치단체에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던 것은 지나치게 한국적인 시스템에 익숙했던 때문은 아닐까.

오쿠츠히메신사 대축제는 얼굴에 붉은 색을 칠하고 붉은색과 푸른색 옷으로 여장을 한 젊은 무리가 신사를 짊어지고 해안으로부터 바다에 뛰어드는 와시마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하는 축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젊은이들이 무리를 지어 신사를 짊어지고 필사적으로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기세좋게 뛰는 모습은 관람객 등에게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오후 3시쯤 신사 행렬이 출발해 오후 5시쯤 신을 바다에 보내는 '입수신사(入水神事)'가 진행된다.

이런 행위 등을 통해 그해의 풍어(豊漁)를 기원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인지 마츠리는 인근 해수욕장과 어항(우리의 수협)앞 광장 등을 활용해 치러진다.

오쿠츠히메신사 대축제로 시작된 오오마츠리는 키리코라고 불리는 북을 매단 큰 등을 매단 가마가 잇따라 원을 그리며 돌고 다리를 왕복하는 등 격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인 쥬조신사 대축제와 스미요시신사 대축제, 신과 물고기를 형상화한 조형물, 집어등과 화려한 장식 깃발을 매단 배가 장관을 이루는 와지마자키신사 대축제로 마무리된다.

분명 와지마시를 대표하는 축제이지만 먹을거리 장터나 유명 연예인 초청 공연 같은 것은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가마나 신사를 짊어지거나 밤새 북을 두드리는 젊은이들과 그들을 격려하는 어른들, 언젠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득 담은 어린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를 만들고 있었다.

오쿠츠히메신사대축제와 와지마자키신사대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나카무라씨 역시 축제장 한복판에서야 만날 수 있었다.

나카무라씨는 "아마마츠리인 오쿠츠히메신사는 여성신을 모시는 곳이며, 이들 축제는 에도시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며 이곳의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특정한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축제를 통해 풍어와 무병장수, 행운을 기원하는 와지마시 전체의 뜻을 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